

# 차세대를 위한 EU 농축산업 2030년 전망 -EU농업 아웃룩 회의에서-(전편)1)

(원문)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허 덕\*, 김종진\*\*, 박지원\*\*\*, 김태런\*\*\*\*

## 1. 머리말

유럽위원회는 ‘차세대 EU 농업~COVID-19 위기로부터 그린 리커버리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EU 농업 아웃룩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COVID-19 위기<sup>2)</sup>가 소비자 건강, 친환경 농업을 가속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 지역산(地域産) 등의 수요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이 외에도, 차세대를 위한 그린 리커버리 방향과 2030년까지 유제품 및 가금·육류 수요 증가 전망 등이 보고되었다.

이 글은 그 전편으로, 그린 리커버리 및 차세대를 위한 EU 농업 동향 외에도, COVID-19가 가져온 소비자 행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이 글은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次世代」に向かうEU農畜産業の2030年展望-EU農業アウトLOOK会議から-(前編)’,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 3月号의 내용을 중심으로 번역·보완하고 설명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 허 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 김종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박지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세계 축산 담당자)

\*\*\*김태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2) 코로나-19로 인한 EU 축산부문의 영향에 대해서는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EU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について-グリーンリカバリーと見直される農業のあり方-’, [特集: 海外の食肉需給の動向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 「畜産の情報」 2021年 2月号 또는 허 덕 외 3인, ‘COVID-19가 각국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제4편-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EU 축산업계에 미친 영향’,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2호(2021년 4월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EU) 농업 동향 및 2030년까지 중기 전망’ 인 ‘2020년 EU 농업 아웃룩 회의’ 를 2020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 개최하였다. 올해로 6번째인 이번 회의는 첫 온라인 개최(참가자 수 9,464명)를 실시하였다(사진 1).

<사진 1> 온라인 회의장 모습. 테마마다 다른 방이 있으며, 게시물을 선택하면 관련 정보를 시청할 수 있다. © 2020 EUROPEAN UNION



모두에는 유럽위원회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연설이 있었다. 연설에서는 “COVID-19의 영향에 의해 식품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한계를 가져왔다” 며 그 최전선에서 있는 농업 관계자에게 찬사가 쏟아졌다.

이 글에서는 회의 중 축산 정세<sup>3)</sup> 및 2030년까지 중기 전망 외에도, 현지 정보를 살펴본다.

이번의 중기 전망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농업 아웃룩 보고서(2020년 7월 16일)’ 에 근거하여 최신 세계 거시 경제 및 시장 데이터를 이용, 다양한 추산들은 각기 다른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번 전망에서는 현재 협의 중인 공통농업정책(CAP)은 현행 제도 상태 그대로 인 것으로 보았다. 한편, 공표된 정책 문서 등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가정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또 무역협정은 비준된 것까지 포함하여 러시아의 EU 농산물 수출금지 조치가 2021년 말까지 지속, EU를 이탈한 영국과의 무관세할당에 의한 무역이 계속될 것을

3) COVID-19가 EU 축산업계의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畜産の情報」 2021년 2월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EU 축산업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 그린 복구와 정비되는 농업의 기본 방향~(「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EU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について」グリーンリカバリーと見直される農業のあり方」 (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94.html)’ 을 참조 바란다.

전제로 하였다.

이 글 중 환율은 1유로=128엔=1,356원(2021년 1월 말일 TTS-달러 환율: 127.98엔, 1,355.9원)을 사용하였다.

## 2. COVID-19 위기로부터 그린 리커버리로

### 2.1.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이행 필요성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

#### ■ 농업은 EU가 지향하는 ‘회복력’의 상징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2020년을 돌아보고 “아직 기억에 있을 것이다. 점포 앞 장사진, 소셜 미디어에 게재된 슈퍼마켓의 빈 선반 사진 보도는 대유행(팬데믹)에 의해 식량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었다” 라고 하였다(사진 2). 그리고 “이 두려움은 기우였다. 선반은 즉시 다시 채워지고 생산자와 서플라이 체인 관계자 덕분에 EU 어디에서도 심각한 식량 부족은 보지 못 했다” 고 말했다.

또 “생산자 재택 근무는 없었다. 그들은 소매를 걸어붙이고 일에 착수하였다” 며 그 자세에 대해 경의를 표하였고, “외식산업 영업 정지 시 생산자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계절 노동자의 도항 제한으로 발이 묶이자 현지 자원봉사자가 보충하였다” 라며 농업 부문은 EU가 지향하는 ‘회복력의 상징’ 이 되었다고 농업 관계자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사진 2>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 필요성을 호소하는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 © 2020 EUROPEAN  
UNION



#### ■ ‘그린 리커버리’는 농업의 장래를 지킨다.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또 하나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라며 농업부문에서의

기후 변화, 토양 환경, 생물 다양성 등을 과제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농업은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것” 이야 말로 그린 리커버리로, 이들을 마주 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것” 이라며, “생산자는 기후 변화와 투쟁하면서 생물 다양성과 유럽의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 ■ 2030년을 위한 ‘지속 가능성’ 에 대한 대응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사회 확립으로 2050년까지 온실 가스(GHG)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carbon neutral)로 하는 ‘유럽 그린 딜 정책4)’ 에 의거 ‘Farm to Fork(F2F,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및 ‘생물 다양성 전략5)’ 으로 2030년까지 화학합성 농약 사용량 및 리스크 50% 감축, 비료 사용량 20% 이상 감축, 가축·수산 양식용 항균성 물질 판매량 50% 감축, 전체 농지에서 차지하는 유기농지 비율 25% 이상으로 확대, 생물 다양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 ■ ‘그린 리커버리’ 의 필요성

위원장은 그린 리커버리에 의한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생산자는 기후 변화를 목격하고 있으며 이해하고 있다” 라며, 최근 빈발하는 가뭄이나 홍수가 때로는 수확에 큰 피해를 주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 회담 중 유럽공동농업정책(CAP)은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으로 이행의 핵심을 이루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식량 안전보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4) 농축산업진흥기구, alic세미나(2020년 12월 14일 개최), ‘EU의 「Farm to Fork(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에 대하여 - 2030년을 위한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EU 농업·식품부문~」 (農畜産業振興機構, alic 세미나-(2020년12월14日開催), 「EU의 ‘Farm to Fork (農場から食卓まで)’ 戦略について - 2030年に向けて, 持続可能性(サステナビリティ)を最優先課題とするEU農業・食品部門-), 農畜産業振興機構(<https://www.alic.go.jp/content/001184979.pdf>)을 참조하기 바란다. 아울러, 유럽 그린 딜에 대해서는 임송수, ‘[특집: EU 농업정책] (제4편) EU 그린딜(Green Deal)과 농식품 부문의 영향’,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허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3) -차기 CAP (2021~2027년)의 검토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 5) Farm to Fork와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해서는 임송수, ‘[특집: EU 농업정책] 제2편-EU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와 성과 추이’,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허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3) -차기 CAP (2021~2027년)의 검토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農畜産業振興機構, 農業・食品等関係団体, 英・EU交渉に5つの緊急要請 (EU) (欧州1番の情報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41.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41.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 英EU・FTAの質の高い合意のほか, BREXIT調整準備金の活用も求める (EU) 【海外情報 令和2年(2020年) 10月1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3.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3.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EU乳業団体, 進展の見られない英国との交渉に懸念を表明し, 英・EU間のサプライチェーンが維持されるよう要請 【海外情報 令和2年(2020年) 6月29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39.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39.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EU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 英EU・FTA交渉が難航していることにリスクが高まっていると懸念を表明. 「合意なし」の場合, 移行期間の延長, 代替案の措置を要求【海外情報 令和2年(2020年) 6月11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24.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24.html))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 ■ 소비자 수요는 ‘지속 가능성’

위원장은 “소비자들의 식품 품질 및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 말하였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농정의 최우선 과제를 ‘지속 가능성’ 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또 이 결과가 유럽 그린 딜의 배경이다. 또한, 생산자의 우려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는 지속 가능성이 있으며, EU의 방향성은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 ■ ‘그린 리커버리’ 추진

위원장은 연구와 기술혁신이 그린 리커버리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연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sup>6</sup>))(2021~27년)에 총 100억 유로(1조 2,800억 엔, 13조 5,590억 원)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80억 유로(1조 240억 엔, 10조 8,472억 원)의 농업·농촌 지역 예산을 포함한 부흥 기금인 ‘Next Generation EU(차세대 E U<sup>7</sup>)’ (7,500억 유로(96조 엔, 1,016조 9,250억 원)을 준비하여 그린 리커버리를 추진

6) EU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R&D) 전략계획(strategic plan) 방향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말까지 전략계획을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 전략계획은 2019.3.20 EU 이사회, 유럽의회, 집행위 삼자협의(trilogue)로 호라이즌 유럽의 주요 사업내용에 정치적 합의에 도달, 4월17일 유럽의회는 이를 승인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호라이즌 유럽(7년간) 예산으로 집행위가 제안한 941억 유로 보다 크게 증액된 1,200억 유로를 권고하였다. 전략계획은 7년간 추진되는 호라이즌 유럽의 초기 3년간 추진할 연구분야, 연구주제 등 큰 틀의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공개된 전략계획 방향은 호라이즌 유럽의 3개 지원분야(필러) 중 EU 정책우선순위에 맞추어 하향식(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될 ‘글로벌 도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필러2)’ 분야에 주로 적용된다. 필러1은 인력교류 및 기초연구, 필러3은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 성격의 사업이다. 특정 문제해결 및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구체적 목표를 지향하는 클러스터 사업과 미션 프로젝트가 전략계획 수립의 주요 대상이다. 호라이즌 유럽의 6개 클러스터 사업은 EU 정상회의(2019.5.9., Sibiu)에서 발표한 차기(2019-2024년) EU 5대 정책방향을 R&D 측면에서 지원한다. ① 안전한(protective) 유럽(관련정책: 안보 및 국방): 사회를 위한 시민안전(civil security for society)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재난관리, 국경관리, 테러/범죄에 대응한다. ② 경쟁력 있는(competitive) 유럽(관련정책: R&D, 디지털, 산업): 디지털, 산업, 우주(digital, industry and space)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디지털 기술 확보 및 산업 리더십 확대, 기후중립/순환경제를 육성한다. ③ 공정한(fair) 유럽(관련정책: 포용사회, 건강, 법치): 건강(health)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 및 질병예방, 혁신계약, 디지털 의료서비스 확대, 문화, 창의성, 포용 사회(culture, creativity and inclusive society)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 양극화·사회적 불평등 해소, 포용적 사회에 기여한다. ④ 지속가능한(sustainable) 유럽(관련정책: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순환경제, 에너지): 기후, 에너지, 교통(climate, energy and mobility)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기후기술, 탈탄소(배터리, 수소 등), 온실가스 저감을 추진한다. 식량, 바이오경제, 자원, 농업, 환경(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자원의 순환활용, 식량안보 등을 추진한다. ⑤ 영향력 있는(influential) 유럽(관련정책: 국제협력): UN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국제적 연구협력을 강화한다.(출처: 외교부 주벨기에대사관, 「연구개발정책」 EU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전략계획 방향, 2019년 9월 ([http://overseas.mofa.go.kr/be-ko/brd/m\\_7570/view.do?seq=1286197](http://overseas.mofa.go.kr/be-ko/brd/m_7570/view.do?seq=1286197)) 및 네이버카페, 과학기술연구개발정책 박문수 카페, <https://cafe.naver.com/rnd/23268>)

7) (Next generation EU(NGEU) 기금 설립 배경: 2020년 3월 COVID-19 발병에 대한 유럽의 초기 대응은 무미건조하였다. 바이러스 패턴을 무시하고 건강에 대한 우려로 인해 EU 회원국들은 일방적인

하며, 최대한 예산 투입으로 인한 생산자의 기후 변화, 환경, 동물 복지, 약제 내성 (AMR)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에코·스킴(Echo Scheme<sup>8)</sup>)’ 을 설치하겠다고 하였다(사진 3).

〈사진 3〉 유럽위원회 본부(브뤼셀), ‘Next Generation EU(차세대 EU) 글자(저자 촬영)(2021년 2월 7일)



## 2.2. 세 가지 성과 -보이체호프스키 농업·농촌개발 담당위원-

### ■ COVID-19대책

보이체호프스키 농업·농촌개발 담당위원은 2020년 세 가지 성과의 첫 번째는 효과적인 COVID-19 대책<sup>9)</sup>을 폈었다(사진 4). 구체적으로는 가축을 포함한 식품 등 생

로 반응하였고, 롬바르디에서 발생한 대규모 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한 이탈리아의 지원을 거부하여 결국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4개국이 유럽의 공동 회복 계획을 거부한 2020년 3월 26일 EU 정상들의 정상회담은 EU가 대유행 위협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게다가 독일과 프랑스는 EU의 모든 곳에서 부족을 초래하는 중요한 의약품의 외부 판매를 제한하였다. 이 바이러스가 유럽 전역의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백만 명의 경제를 마비시키자 상황은 견딜 수 없게 되었고, 2020년 5월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 공동의 부채 5,000억 유로를 제안하여 당초 해제된 회수기금을 재융자 하였다. 유럽 의회는 나흘간의 협상 끝에 7,500억 유로(2018년 정가 기준)의 대규모 EU 복구 기금에 합의하였다. COVID-19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EU의 NGEU기금을 설립하였다. (기금 예산 개요) NGEU 기금은 2021~2023년에 걸쳐 EU의 정기 예산인 2021~2027년 예산과 연계된다. NGEU와 MFF의 종합 패키지는 18,243억 유로에 이를 것이다. 유럽연합(EU)의 이번 거래는 사상 처음으로 유럽 국가채권을 발행해 유럽 재정 통합의 첫 단계로 꼽히는 직접 과세를 통해 자원의 창출로 이를 갚는 유럽 국가들에 보조금과 대출을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Next\\_Generation\\_EU](https://en.wikipedia.org/wiki/Next_Generation_EU))

8)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 정보, ‘유럽 위원회, ‘에코·스킴’ 으로 유기 농업 종합적 병해충·잡초 관리(IPM), 애그로 에콜로지, 동물 복지 등의 대책을 제안(EU)’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 「欧州委員会, 「エコ・スキーム」として有機農業, 総合的病害虫・雑草管理 (IPM), アグロ・エコロジー, アニマルウェルフェアなどの取組みを提案 (EU)」)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82.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82.html)) 를 참조하기 바란다.

9) 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21년 2월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EU 축산업계

필품과 계절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이동시키는 서플라이 체인 대책 외에 쇠고기와 유제품의 민간재고보조(조정보관)등 시장 조치, 생산자 등에 대한 저리 대출, 선급 보조금 증액 등 직접 지원을 실시하였다.

<사진 4> 3가지 성과를 보고하는 보이체호프스키 농업·농촌개발 담당 위원 ©2020 EUROPEAN UNION



### ■ 차기 CAP예산 증액

두 번째로, 차기(2021~27년) CAP 예산의 증액을 꼽았다. 유럽 그린 딜과 COVID-19 위기에서 농업이 재평가되면서, CAP 예산은 2018년 당초 예산안에서 220억 유로(2조 8,160억 엔, 29조 8,298억 원) 늘어난 3,870억 유로(49조 5,360억 엔, 524조 7,333억 원)로 결정되었다.

### ■ 지속 가능성을 배려한 CAP 개혁

세 번째로, 유럽 그린 딜 달성을 위한 CAP 개혁 의지를 꼽았다. 다만, 식량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 등 의견이 있어 협의는 난항 중이라고 하였다.

---

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그린 리커버리와 정비되는 농업 기본방향-’ 2 COVID-19를 둘러싼 축산업계의 동향 및 지원책 등(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21年 2月号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EU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について-グリーンリカバリ-と見直される農業のあり方-’ 2 COVID-19をめぐる畜産業界の動向および支援策など([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94.html#title3](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94.html#title3))을 참조하기 바란다.

### 3. 차세대 EU 농업

#### 3.1. 차세대를 위하여 -보이체호프스키 위원-

##### ■ 농촌부를 매력적이고 활기 넘치는 장소로

보이체호프스키 위원은 “젊은 생산자에 대한 적절한 세대교체 확보가 EU 농업의 미래와 식량 안전보장에 중요하다”라며 “많은 농지가 후계자 부족과 고령 생산자에 의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커다란 과제”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한편 CAP에 의한 젊은 생산자 지원은 계속하고, “농촌부를 보다 매력적이고 활기 찬 생활의 장소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며,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 “많은 농촌부에서 아직 착수하지 않은 IT 인프라 정비에 대해 작업효율 향상에 이바지하고 즉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 서플라이 체인 단락화(短絡化<sup>10)</sup>)의 중요성

그는 위기 대응력 향상 대책으로 ‘Farm to Fork(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에 따른 ‘서플라이 체인 단락화 권장’을 꼽았다. 또 이 전략에 기초하여 지역 진흥에 이바지하는 ‘지리적 표시(GI)제도’, 검토 중인 ‘애니멀 웰페어(Animal Welfare, 동물 복지) 표시 등 보급 추진’을 촉진하는 한편, 축산부문의 ‘사료 수입 및 외부 시장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앞으로 대응하여야 할 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 3.2. 적응력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구축 -CEJA 마스 회장-

##### ■ 젊은 생산자의 메시지

차세대 EU 농업에 대해 자신도 벨기에에서 낙농경영을 하고 있는 젊은 생산자인 유럽청년농업생산자협의회(CEJA) 야네스마스(Jannes Maes)회장이 강연하였다(사진 5).

10) 농축산물 직거래와 같이 벨류체인 상에서 경로의 단축이나 분리 등과 같은 현상을 의미한다. 프랑스 농업·식품·어업·농촌부에 의하면, ‘단락유통’이란 식품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단락화를 말하며,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직접 판매 혹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중개를 하나 이내로 하는 농산물의 판매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출처: 허 덕 외 3인, ‘[특집: 코로나바이러스가 각국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제4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EU 축산업계에 미친 영향-그린 리커버리로 재검토되는 농업의 기본방향-’ 「해외곡물시장동향」 20권 2호(2021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國際調査グループ),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EU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について-グリーンリカバリーと見直される農業のあり方-’, [特集: 海外の食肉需給の動向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 「畜産の情報」 2021年 2月号를 참고하길 바란다.

<사진 5> 힘찬 메시지를 발신한 CEJA 마스 회장 ©2020 EUROPEAN UNION



그는 우선 획일적인 생산자 지원에 대한 우려를 전하였고, 젊은 생산자 약 200만 명을 대표하는 조직에서 활동 중으로, “생산자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있다” 며 다양한 생산자에 대응한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또 젊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농장에서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력을 갖는 것이다” 라며,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력과 재정적인 리스크 대응력’ 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리고 “적응력이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고 수많은 젊은 생산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였다.

#### ■ ‘지속 가능성’ 과 ‘세대교체’ -직접 인터뷰-

강연 후 젊은 생산자의 과제에 대해 마스 회장에게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우선 “정책 제안은 트레이드 오프 가능성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접근인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또 “일본 역시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대 교체에 큰 과제를 안고 있다” 라며, “젊은 신규 참가나 규모 확대의 최대 장벽은 농지 취득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농약 감축, 비료 감축, 유기 추진, 비생산 지역 확보 등의 압력이 높아지면 농지 취득 경쟁에는 더 압력이 커질 것이다. 가장 재정력이 약한 우리 젊은 생산자의 농지 취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책은 집약 농업을 더욱 뒷받침하게 된다” 라고 지적하였다. 또 “즉, 젊은 생산자의 농지 취득이라는 과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라며 “환경 기능과 생산을 양립하는 생산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말하였다.



## <부록 1> COVID-19에 의한 현자산, 애니멀 웰페어 지향의 고조: 독일 유기식품 설문조사 결과

독일 연방식량농업성은 2021년 1월 14일 COVID-19에 의한 영향을 포함한 유기식품 소비 상황에 관한 설문 조사(2020년 7월 말~8월 말, 14세 이상의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결과를 발표하였다.

### ■ 유기농 수요는 증가 경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유기농 식품을 ‘자주’ 혹은 ‘항상’ 구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9년(지난 번 조사)의 49%에 비하면 감소한 것이지만, 2018년(지지난 번 조사) 28%에 비교하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이 비율은 14~29세 층에서 44%, 30~39세 층에서 42%로 나타나, 젊은 층일수록 경향이 거세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향후 유기농 식품을 ‘자주’ 혹은 ‘항상’ 사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48%로, 역시 2019년 58%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2018년 35%에 비해서는 증가하였다.

독일 연방 식량농업성은 이 결과에 대해, 유기농 식품 수요는 장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 대해서는 환경운동과 환경문제 자체에 대한 국민 의식 고조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한편, 2020년에 대해서는 COVID-19의 유행에 의해 다소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농 식품을 ‘전혀 구입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20%, 미래에도 ‘전혀 구입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11%였다.

### ■ 계란과 청과에 높은 수요

‘자주’ 혹은 ‘항상’ 구입되는 유기 식품 중 가장 그 비율이 높은 ‘계란’ 은 2019년 이후 8%p 늘어난 74%였다. 이어 ‘과일’ 이 70%, ‘유제품’ 이 51%였다. 또 ‘육류·육류 가공품’ 이 2019년부터 8%p 늘어난 50%로, ‘빵류’ 의 40%를 웃돌았다.

### ■ 최대 이유는 애니멀 웰페어

유기농 식품을 구입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은 2019년에 이어 ‘애니멀 웰페어’ 에서 96%였다. 이어 ‘자연’ 이 94%, ‘현자산, 지역 지원’ 이 93%, ‘건강’ 이 92%로 나타났다. 기타 ‘첨가물’, ‘잔류 농약’, ‘유전자 조작’ 을 회피하는 일도 이유의 상위로 꼽았다.

## ■ COVID-19에 의한 현지산 애니멀 웰페어 지향

COVID-19로 늘어난 소비자 행동으로서 가장 많은 응답은 ‘지역산 구입 빈도’에서 20%였다. 이어 ‘자기 농장에서 조달 빈도’가 19%, ‘유기농 식품의 구입 빈도’가 15%였다. 반면 줄어든 것 중 최대는 ‘장보기 빈도’에서 21%, 이어 ‘방문 점포 수’가 12%, ‘조리 후 식품의 배달 주문 빈도’가 11%였다.

또한 이들 소비자 행동 중 향후에도 계속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은 응답은 ‘높은 의식을 가지고 쇼핑’이 21%였다. 이어 ‘현지산 신선 식품의 추가 구입’이 20%, ‘애니멀 웰페어·유기 육류 구입’이 11%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 ‘유기농 식품 추가 구입’이 9%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독일 연방의 크렛크너 식량농업 장관은 “COVID-19 유행이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소비자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쇼핑을 하게 되어 지역산과 유기 생산에 따른 높은 가치를 찾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부록 2> 물류 체인 단락화 실천: 오스트리아의 농업 법인

서플라이 체인의 단락화를 실천하는 오스트리아의 시몬 페타(Simon Vetter) 씨의 대처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부록 2-사진 1).

<부록2-사진1> 페타호프(vetterhof)를 이끌고 있는 시몬 페터 씨(뒷열 중앙)과 종업원(호프(Hof)란 독일어로 가운데 정원이라는 뜻) @2021 vetterhof



그가 CEO(최고 경영 책임자)인 농업법인 페타호프(Vetterhof)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포어아르베르크 주에 있으며, 유기 소, 유기 돼지, 유기 채소 생산을 10명 이상의 종업원과 함께 진행(부록 2-사진 2, 3)하고 있으며, 약 40헥타르의 농지 중 4분의 3이 목초지, 나머지가 밭이다.

채소는 감자, 가지, 당근, 순무, 양파, 브로콜리 등 연간 40개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소와 돼지는 방목을 중심으로 농후사료는 쓰지 않고, 목초와 유기사료로 사육한 채소 찌꺼기와 가축의 퇴비에 따른 순환도 한다.

<부록2-사진2> 방목되고 있는 육우. 뒤에는 알프스 @2021 vetterhof



<부록2-사진3> 직접 재배하는 채소밭 @2021 vetterhof



생산된 농축산물은 거의 전량을 직접 판매하였으며, 주 1회 약 700가구에 대한 채소 세트를 정기 배송(7~10개. 환경 배려로 배송은 카고 오토바이나 전기 자동차) 외에도, 매주 금요일에 부지 내의 직매소에서 채소, 고기 외에도 가공품과 조미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부록 2-사진 4, 5). 또 3~12월 초순 사이는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지역 야외 시장에서 판매한다.



COVID-19의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2020년 4월, 이용자들의 요청에 의해 직매소 영업을 반나절 늘렸다. 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지 생산자의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었다. 직매소는 위생 대책으로 입장객 제한 외에 방문객에게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등을 권장하는 등과 같은 대응을 하였다.

또한 그는 환경에 대처하는 공로가 인정되어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이 농장의 활약은 지역 사회 공헌에 그치지 않는다. 또 차세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보는 유럽위원회 인터뷰에서 “조언을 구할 것! 수줍어할 것 없다. 수 천 명의 사람이 같은 고생을 하고 있다. 우선 누군가에게 물어 보라. 모든 것은 좋아질 것!” 이라고 답하였다. 지역 사회에 뿌리내린 서플라이 체인의 단락화를 실천하는 그와 같은 농민이 차세대 EU 농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외교부 주벨기에대사관, 「[연구개발정책] EU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전략 계획 방향」, 2019년 9월 18일 ([http://overseas.mofa.go.kr/be-ko/brd/m\\_7570/view.do?seq=1286197](http://overseas.mofa.go.kr/be-ko/brd/m_7570/view.do?seq=1286197))
- 임송수, 「[특집: EU 농업정책] (제4편) EU 그린딜(Green Deal)과 농식품 부문의 영향」,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특집: EU 농업정책] 제2편-EU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와 성과 추이」,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3) -차기 CAP (2021~2027년)의 검토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3) -차기 CAP (2021~2027년)의 검토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외 3인, 「COVID-19가 각국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제4편-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EU 축산업계에 미친 영향」,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2호(2021년 4월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農畜産業振興機構, alic 세미나-(2020년12월14日開催), 「EU의 ‘Farm to Fork (農場から食卓まで)’ 戦略について - 2030年に向けて, 持続可能性(サステナビリティ)を最優先課題とするEU農業・食品部門-」
-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次世代」に向かうEU農畜産業の2030年展望-EU農業アウトLOOK会議から-(前編)」,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 3月号
-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国際調査グループ),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EU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について-グリーンリカバリーと見直される農業のあり方-」, [特集: 海外の食肉需給の動向につい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 「畜産の情報」 2021年 2月号
- 農畜産業振興機構, 農業・食品等関係団体, 英・EU交渉に5つの緊急要請 (EU) (欧州1番の情報([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41.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41.html)))
- 農畜産業振興機構, 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 英EU・FTAの質の高い合意のほか, BREXIT調整準備金の活用も求める (EU) 【海外情報 令和2年(2020年) 10月1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3.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3.html))
- 農畜産業振興機構, EU乳業団体, 進展の見られない英国との交渉に懸念を表明し, 英・EU間のサプライチェーンが維持されるよう要請 【海外情報 令和2年(2020年) 6月29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39.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39.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EU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 英EU・FTA交渉が難航していることにリスクが高まっていると懸念を表明. 「合意なし」の場合, 移行期間の延長, 代替案の措置を要求【海外情報 令和2年(2020年) 6月11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24.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24.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 「欧州委員会, 「エコ・スキーム」として有機農業, 総合的病害虫・雑草管理 (IPM), アグロ・エコロジー, アニマルウェルフェアなどの取組みを提案 (EU)」」([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82.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882.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2021年 2月号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EU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について-グリーンリカバリーと見直される農業のあり方-’ 2 COVID-19をめぐる畜産業界の動向および支援策など  
([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94.html#title3](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94.html#title3))

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2021年 2月号,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EU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について-グリーンリカバリーと見直される農業のあり方-’ 4 変わる消費者行動: 強まる地産地消の動きと見直される農業  
([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94.html#title7](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94.html#title7))

네이버카페, 과학기술연구개발정책 박문수 카페, <https://cafe.naver.com/rnd/23268>)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Next\\_Generation\\_EU](https://en.wikipedia.org/wiki/Next_Generation_EU))